

최근 북한 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정신건강 연구에 대한 탐색적 고찰

유 시 은*

고려대학교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북한내 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정신건강 관련 연구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문헌연구이다. 이를 위해 국내 입고된 북한 의학 학술지 11종 중 [예방의학], [소아산부인과], [조선의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당면한 정신건강 관련 과제와 향후 남북 교류협력을 감안하여金正은 시대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북한내 의학 학술지 3종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8년도 하반기까지 정신건강과 관련된 논문은 총 28편이었다. 그중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와 관련된 논문은 23편(82.14%)이었다. 23편은 주로 심리 진단 및 심리치료 효과, 심리건강 및 심리치료 소개 등이었다. 출판년도별 정신건강 게재 편수는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1편씩,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각각 2편씩, 2015년도에는 7편, 2016년에는 4편, 2017년에는 7편, 2018년에는 4편이 게재되었다. 북한 의학 학술지의 정신건강 관련 연구의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 설명적 연구는 14편(50%), 문헌연구는 11편(39.29%), 그 외에 실험연구 2편(7.14%), 통계DB연구는 1편(3.57%)이었다. 이러한 탐색적 고찰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북한 의학 학술지내 정신건강 관련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남북한 정신건강 교류 협력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북한 의학 학술지, 정신건강 연구, 탐색적 고찰

* 교신 저자 : 유시은, 고려대학교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 연구교수,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73 의과대학 제1의학관 5413호, Tel:02-2286-1060, E-mail: seyoun1224@hanmail.net

I. 서론

1. 연구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HO)현장에 의하면, '건강은 단지 질병에 걸리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웰빙한 상태'이다. 여기서 정신건강(mental health)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해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WHO, Mental health: strengthening our response, 2018). 한국교육심리학회(2000)에서, 정신건강이란, '인간의 심리적 기능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이 없고, 정상 범주에 있으며, 잘 적응하고, 불만이 적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이다. 또한, 인간 정신기능의 생리적·심리적·사회적 측면이 상호 심각한 갈등 없이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사회집단과 현실적 적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김춘경(2016)에 의하면, 정신건강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예방 및 치료라는 소극적인 측면과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유지 및 증진이라는 적극적인 측면을 가진다'고 되어있다.

이상의 '정신건강'의 공통적인 개념을 도출하면, 정신적인 질병 증상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며 자주적이고 건설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성숙된 인격체를 갖

추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신건강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법률 5134호)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 용어가 도입되었으며,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그 당시 국내의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즉, 1992년 구소련 및 중국과의 한중수교가 실현되었고, 1993년 문민정부 전환이 일어났으며, 1994년 북한에서 김일성 사망 및 1997년 한국 IMF 전야 등으로 인한 일련의 변화로 인한 환경적응 및 정신위생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통일의 가능성 및 변화의 역동이 증가하면서, 북한 정권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상의 배경에서 북한 관련 연구 접근 주제가 상당부분 해제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북한의 정신건강 탐색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제한된 창구를 통하여, 상기 정신보건법에 준거한 북주민의 정신건강 연구 접근이 시작되었다. 1999년 12월에 통일부 하나원이 설립되어, 기관내 정신건강을 전담하는 상담심리사가 2000년 9월부터 활동, 일련의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하나원에 심리상담사로 재직하였으며, 그후 지역사회 사회복지관 및 제3국 영사관에 체류하는 보호대상 북출신 주민들의 심리상담 및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건강 현황 및 그 인식에 대해 추적하였으며, 남북한 주민들의 정신건강 관련 인식 및 태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Park(2012)의 연구에서도 사회문화적인 요

인에 따라 정신건강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이외에도 북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연구하기 위한 시도로서, Kim SJ, Park YS, Lee HW, Park SM.(2012)은, 북한에서 10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의사 3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정신의학'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신질환 증상이 분명한 환자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대개 정신과에서 다뤄지지 않으며, 자살은 국가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되며, 이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북한의 정신의학에 대한 결론으로, 남북 정신의학은 크게 차이가 나며, 구 사회주의 국가의 정신과와 유사하나, 북한의 정신의학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Shieun Yu, Jungeun Jang, Jin-Won Noh, Young Dae Kwon, Hyunchun Park, Jong-Min Woo(2018)은 북한에서 의료인이었거나, 친인척 중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북한이탈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한 결과, 북한에서 '1) 정신건강 용어와 개념에 대해 생각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으며, 2)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병이라는 것을 몰랐으며, 3) 정신건강이 질병이라는 것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많으며, 4)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인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고찰함에 있어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회고적인 접근이다. 이는 북한내 정신건강 관련 의료인을 직접 대상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한 대안적인 접근이며, 북한내 정신건강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북한의 정신건강에 대해 고찰함에 있어 남한 및 서구권의 렌즈가 아닌,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사회는 남한과 달리 '당 및 근로단체 조직'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또는 심리상담 기능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 심리상담의 의미는 '인민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픈 심정' 또는 '곤란'을 해결해주는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및 약물치료 등을 실시한다. 심리학의 경우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교육학 및 경찰학교, 공산대학에서 일반 교양 및 '사람과의 사업'에 필요한 기초 과목이다. 즉, 정신과 의사 및 심리치료 전문 상담자가 아닌 교육 및 주민 교양과 관련된 인력은 일반 대중을 향하여 '군중/대중 사업' 또는 '담화' 등으로 심리상담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사회문화적인 특징은 남북한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입고된 최근 북한 의학 학술지에서 정신건강 관련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적인 접근을 탐색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논문을 우선 선별하고, 그중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적인 논문을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한반도 미래 세세대의 창의적인 교육과 그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아의 특성을 발견하는 개인의 정신건강과 타인과 협업할 수 있는 사회적인 건강에 대한 남북한 교류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최근 북한내 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정신건강 관련 연구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문헌고찰이다. 특히,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접근의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는 2019년 3월 25일, 4월 25일, 5월 10일, 5월 23일 4일 동안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방문하여, 국내 입고된 북한 의학 학술지(연속간행물) 11종중 [예방의학], [소아산부인과], [조선의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종의 학술지를 선택한 이유는, [예방의학]의 경우 남북한이 전염성 질환 방역을 협력해야 하는 보건권역임을 감안한 것이며, [소아산부인과]는 건강취약계층인 여성 및 아동의 건강을 우선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의학]은 북한의 건강관련 의학 논문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간행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 범위는 2011년 11월 김정일 사망이후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과거 북한 의학 학술지내 정신건강 관련 연구의 역사적인 접근 역시 중요하나, 본고에서는 현재 당면한 정신건강 관련 과제와 향후 남북 교류협력을 감안하여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에 김정은 시대 정신건강 관련 연구의 년간 추이를 탐색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2011년 제1호부터 2018년 제4호까지 분석하였다. 필자는 최근 북한의 정신건강 관련 연구 경향과 의미있는 연구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1단계: 연구 질문 설정

문헌고찰의 일반적인 방법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북한의 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정신건강 관련 연구는 무엇인가?

둘째, 최근 북한의 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는 무엇인가? 셋째, 미래사회 정신건강 및 사회적 건강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함의는 무엇인가?

2단계: 관련 연구 확인

최근 북한 의학 학술지에서 정신건강 관련 연구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까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입수된 북한 의학관련 학술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연속간행물중 의학 학술지는 [고려의학], [치과/안과/이비인후과], [조선의학], [약학], [의학], [내과], [예방의학], [소아산부인과], [외과], [기초의학], [조선약학]으로 총 11종이었다.

3단계: 연구선택

세번째 단계는 연구 질문과 관련된 논문을 선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외시켜서 최종 분석 대상을 간행물을 선택하였다. 선정시 북한에서 과학관련 업무를 했으며, 사회문화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국내외에서 북한관련 자문 및 연구를 하는 전문가로부터 정신건강 관련 연구 목록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11종의 의학관련 정기간행물중 [예방의학], [소아산부인과], [조선의학] 학술지를 선택하였으며, 2011년 제1호부터 2018년 제4호

까지의 목차를 복사하고, 그중 정신건강 관련 원문을 확보하여 전문을 고찰하였다.

2011년부터 2018년도 하반기까지 [예방의학], [소아산부인과], [조선의학] 목차에서 수집된 관련 문헌은 총 30편이었으며, 원문을 검토하면서 정신건강과 관련 내용이 적은 2편을 제외하여, 최종 선택한 연구는 28편이다. 그중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와 관련된 논문은 23편(82.14%)이었다. 23편은 주로 심리 진단 및 심리치료 효과, 심리건강 및 심리치료 소개 등이었다.

4단계: 데이터 기록

네번째 단계는 WHO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논문을 분류하고 데이터로 기술하는 것으로써, 분석 대상을 충분히 검토하고 중요한 내용을 엑셀 프로그램에 기록(Charting)하였다. 기록한 내용은 저자, 학술지, 호수, 연구 대상, 연구유형, 연구설계, 결과, 요약, 참고문헌, 실마리어(주요어, key word), 영문요약 등이다. 데이터 기록 과정에서 필자는 자문위원과 토의를 통하여 기록 작업에 임했으며, 토론 후 일치되는 사항을 기록하였다.

5단계: 분석, 요약과 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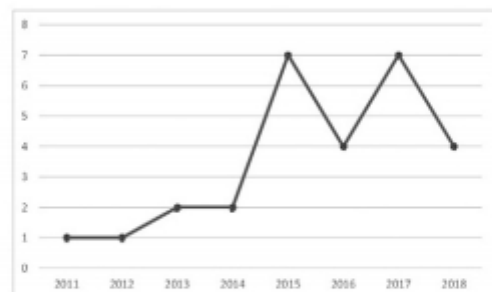
필자는 탐색적 고찰에 있어서 논문 원문을 복사하여 모의 평가와 분석을 하였으며, 발제자와 자문위원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항목은 토의하여 제외 또는 추가하였다. 최종 선정된 논문은 발표년도, 학술지별 등으로 분석하고, 연구대상, 연구방법, 세부 연구 주제를 살펴보고 있다.

III. 연구결과

1. 북한 의학 학술지의 정신건강 논문 동향

1) 정신건강 관련 논문 출판연도별 게재 편수

북한 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정신건강 관련 논문의 연구별 현황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1편씩 게재되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각각 2편씩 게재되었다. 2015년도에는 7편이 게재되었으며, 2016년에는 4편, 2017년에는 7편, 2018년에는 4편이 게재되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3종의 학술지에 게재된 정신건강 관련 논문수는 김정은 시대 초기에 비하여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5년과 2017년도 정신건강 관련 논문 편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과 2018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내부 긴장이 고조되면서, 과학적인 학문 분야가 과거로 회귀 및 위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출판연도별 3종의 북한 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정신건강 관련 논문 게재 편수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정신건강 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소아산부인과]에만 게재되었다. 2014년은 [조선의학과], [소아산부인과]에 각각 1편씩 게재되었으며, 2015년에는 [소아산부인과] 5편, [예방의학]에 2편이 게재되었다. 2016년에는 [소아산부인과]와 [예방의학]에 각각 3편과 1편이 게재되었으며, 2017년에는 [조선의학] 3편, [소아산부인과] 4편으로 총 7편이 게재되었다. 2018년에는 [조선의학과] [예방의학] 각각 2편이 게재되었다. 출판년도별 게재 학술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소아산부인과]에 정신건강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게재된 것을 볼 수 있다.

발표된 글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3종의 학술지는 모두 '연구성과 및 경험', '종설 및 강의', '토막'으로

<표 1> 3종 학술지별 논문 게재 수

해당년도	학술지	편수
2011	소아산부인과	1편
2012	소아산부인과	1편
2013	소아산부인과	2편
2014	조선의학	1편
	소아산부인과	1편
2015	소아산부인과	5편
	예방의학	2편
2016	소아산부인과	3편
	예방의학	1편
2017	조선의학	3편
	소아산부인과	4편
2018	예방의학	2편
	조선의학	2편
계	3종	28편

구성과와 경험', '종설 및 강의', '토막'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종설 및 강의', '토막'은 저자들의 연구라기보다 자료 조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북한에서는 '통보'라고 일컫는다. '종설 및 강의'의 경우 참고문헌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경우가 많으며, 토막은 2011년부터 2018년 3종의 학술지에서 발표된 정신건강 관련 글은 '연구성과 및 경험'가 19편(67.9%)이며, '종설 및 강의/자료'는 7편(25%), 토막은 2편(7.14%)이었다. '연구성과 및 경험'의 경우 [예방의학]은 '연구성과'라고 하거나, [조선의학]은 '연구논문'이라고 명기되기도 하였다.

2) 정신건강 관련 연구주제 구분

연구 주제는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 첫째, 정신질환과 관련되어 APA(2015) 및 ICD-10 기준 등으로 설명되는 증상적인 자폐증, 해리장애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범주화하였다. 둘째, 심리적 적응에 대한 것으로 심리적 위기와 고통 등으로 국제기구 및 관련 연구자의 진단 도구 활용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정신건강의 회복 패러다임을 반영한 개념으로 만족도, 건강심리 등을 포함시켰다. 넷째, 정신건강과 관련된 포괄적인 연구로 정신건강 전략, 정신건강 문제 예측과 비교, 서비스 모색

<표 2> 발표 논문 유형

구분	편수(%)
연구성과 및 경험	19편(67.9%)
종설 및 자료/강의	7편 (25%)
토막	2 편(7.1%)
합계	28편(100%)

등으로 구분하였다. 다섯째, 자기실현, 정서와 관련된 내용을 묶어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범주에 따라 북한 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정신건강 관련 연구 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심리적 적용 관련 논문은 15편(48.38%)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질환 및 회복 패러다임은 각각 7편(22.58%), 포괄적 연구 및 기타는 각각 1편(3.23%)로 나타났다.

3) 정신건강 관련 저자 및 게재 편수

2011년부터 2018년까지 3종의 학술지에 게재

된 정신건강 관련 논문 28편에 참여한 저자는 총 42명이다. 그중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성진과 리영민의 논문이 6편 게재되었다. 뒤이어 김유근과 로경희의 논문이 각각 5편과 4편 게재되었다. 2편을 게재한 저자는 리광희, 박미라, 전충호, 조련희, 최윤성, 최혜영, 한봄순이었다. 즉, 2편 이상 게재한 저자는 총 11명이며, 31명의 저자는 각각 공저자로 참여하여 1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4편이상 게재한 저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리성진과 리영민, 김유근은 [소아산부인과]학술지에 공동저자로 참여하였으며, 로경희는 전충호, 박미라, 박은별과 공저하였다.

정신건강 관련 연구에 참여한 저자 42명중

<표 3> 북한 의학 학술지 정신건강 관련 연구 주제

상위범주	하위범주	편수(%)
심리적 적용	불안 (6)	15(48.38%)
	우울 (5)	
	주관적 심리상태(1)	
	심리 조사 (1)	
	어린이증상검사 (1)	
정신 질환	어문출현 (1)	7(22.58%)
	어린이 자폐증 (1)	
	자폐증치료평가조사 (1)	
	공포불안장애 (2)	
	격리불안장애 (2)	
	자폐증 유사질병(1)	
	발달장애증상 (1)	
회복 패러다임	해리(전환)성장애 (1)	7(22.58%)
	현증관찰 (1)	
	심리치료 요법 및 효과 (2)	
포괄적 연구	약물치료 효과 (2)	1(3.23%)
	건강심리(2)	
기타	환자의료봉사질 만족도 (1)	1(3.23%)
	정서 (1)	
합계		31개(100%)

*논문에서 언급한 연구 주제 복수 체크

<표 4> 북한 의학 학술지 정신건강 관련 저자별 논문 게재 편수

저자명	편수	저자명	편수
리성진	6	리은희	1
리영민	6	신정순	1
김유근	5	신찬재	1
로경희	4	오귀화	1
리광희	2	오일선	1
박미라	2	오현진	1
전충호	2	왕정남	1
조련희	2	임예경	1
최윤성	2	장혜경	1
최혜영	2	조신옥	1
한봄순	2	조희건	1
김명호	1	최남용	1
김선경	1	고충일	1
김용남	1	김동철	1
김정혁	1	김명심	1
김철남	1	박경선	1
류성일	1	박은별	1
리성준	1	박혜란	1
리수금	1	최정근	1
리은영	1	한영복	1
리은정	1	한정옥	1

단독 저술은 없으며, 2편이상 게재한 저자들의 발표 학술지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2인 이상 공동저자 편수는 19편(67.86%)으로 가장 많았으며, 3인은 7편(25%), 4인은 2편(7.14%)로 나타났다.

2편이상 정신건강 관련 논문을 게재한 저자들을 중심으로 학술지와 출판년도를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성진(6편), 리영민(6편),

김유근(5편)은 공동저자로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아산부인과]에 발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불안장애의 약물 및 심리치료'이다. 그들은 불안에 대해 공포 및 격리, 사회 불안을 구분하여 게재하였으며, 연구성과 및 종설을 통해 불안장애에 대한 다양한 약물 및 심리치료, 개념 등을 소개하였다.

로경희(2014)는 [소아산부인과]에서 '어린이자폐증의 특징'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에 [조선의학]에 '어린이자폐증 약물치료'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7년 전충호와 공저하여 [조선의학]과 [소아산부인과]에 각각 1편씩 발표하였다. 공저시 연구주제는 '어린이자폐증의 약물치료와 진단'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표 5> 북한 의학 학술지 정신건강 관련 공동저자 편수

저자수	편수	백분위
2인	19편	67.86%
3인	7편	25%
4인	2편	7.14%
합계	28편	100%

<표 6> 북한 의학 학술지 정신건강 관련 게재 편수가 2편 이상인 저자별 학술지 및 출판년도, 연구주제

저자명	편수	학술지명	출판년도	연구주제
이성진	6	소아산부인과	2013, 2014, 2015	학령기전 불안장애(공포, 격리, 사회) 약물 및 심리 치료
리영민	6	소아산부인과	2013, 2014, 2015	
김유근	5	소아산부인과	2013, 2014, 2015	
로경희	4	소아산부인과	2014, 2017	어린이자폐증 임상적 특징, 어린이자폐증 조기진단
		조선의학	2014, 2017	어린이자폐증 약물치료
전충호	2	소아산부인과	2017	어린이자폐증 조기진단
		조선의학	2017	어린이자폐증 약물치료
리광희	2	소아산부인과	2011, 2012	자율신경기능실조증환자의 정서상태, 정상임신부의 심리적 특성
박미라	2	소아산부인과	2016	어린이 정서장애 조기감별, 어린이자폐증 임상적특징
조련희	2	소아산부인과	2013	어린이 불안장애(공포)
		예방의학	2018	불안장애환자
최윤성	2	예방의학	2018	정신지능장애자 지능수량화
		조선의학	2018	자폐증
최혜영 한복순	2	조선의학	2017	현대의학과 건강심리학
		소아산부인과	2017	청소년 심리와 건강

리광희는 2011년과 2012년에 소아산부인과에 각각 1편씩 발표하였으며, 최근 발표 논문은 없다. 리광희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자률신경기능실조증환자의 정서상태 및 심리적인 특징'을 연구하였다.

박미라는 2016년 [소아산부인과]에 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박미라의 연구주제는 '어린이 정서장애 조기감별 및 어린이자폐증 임상적 특징'이다. 조련희는 2013년 소아산부인과에 1편의 논문을 발표한후, 2018년 [예방의학]에 1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조련희는 2013년 리성진·리영민과 '불안장애'를 공저한 이후 2018년 다른 저자와 함께 '어린이자폐증'을 발표하였다. 최윤성은 2018년에 [조선의학]과 [예방의학]에 각각 1편씩 발표하였으며, '회색동급무게결정 방법을 활용하여 정신지능장애자의 지능을 수량화'하였으며, '자폐증'에 대해 연구하였다.

최혜영과 한봄순은 공저자로서 2017년에 [조선의학]과 [소아산부인과]에 각각 1편씩 발표하였다. 그들은 병리적인 측면보다는 '건강심리' 및 '심리와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 소개하였다.

4) 정신건강 관련 논문의 연구방법

연구방법 분석은 Kim(2013)이 개발한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이 분석틀은 다른 분석틀에 비해 분석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다음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설명적 연구이다. 변인 간의 관계 양상이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둘째, 실험 연구이다. 실험실 또는 실험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개입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유사 실험연구를 포함한다. 셋째, 질적 연구이다. 심층면접 또는 참여관찰을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생활, 가족

사, 경험, 사건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이다. 넷째, 통계DB(데이터베이스)분석이다. 비반응적 연구의 하나로서 연구자가 수행한 설문이나 외부기관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2차자료 연구이다. 다섯째, 문헌연구이다. 해당 연구주제에 관련하여 분석틀을 통해 기존문헌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거나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접근이다. 또한 척도개발 등의 연구도 이에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여섯째, 다중방법연구(또는 혼합연구)이다. 위에서 열거된 실증적인 연구방법중 2개 이상을 활용한 연구이다.

Kim(2013)의 분석틀에 의해 북한 의학 학술지의 정신건강 관련 연구의 연구방법을 구분한 결과, 설명적 연구는 14편(50%)로 가장 많았다. 차순위로는 문헌연구가 11편(39.29%)를 차지하였으며, 그중 3편은 심리검사지 및 진단 도구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 실험연구 2편(7.14%)이었다. 통계DB연구는 임신모 18,039례를 대상으로 임신모의 등록관리카드/해산대장/예방접종카드 등을 통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한편, 질적연구와 다중방법연구는 없었다(표 7).

〈표 7〉 북한 의학 학술지 정신건강 관련 연구방법별 구분

연구방법	편수(%)
설명적 연구	14편(50%)
실험 연구	2편(7.14%)
질적 연구	없음
통계DB연구	1편(3.8%)
문헌 연구	11편(39.29%)
다중방법 연구	없음
합계	28편(100%)

*검사지 및 진단도구 척도 개발과 관련

2. 북한 의학 학술지의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논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논문은 심리적인 진단과 심리치료적인 접근의 효과성을 다룬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상기에서도 언급하였듯이 3종의 학술지중 28편의 정신건강 관련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그중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관련 논문은 23편(81.13%)이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논문 내용 분석

북한 의학 학술지에서 23편의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와 관련된 논문을 중심으로 주로 다루어진 내용을 <표 8>과 같이 구분하였다. 그중 질병 및 정서적인 증상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 9편(39.13%)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주로 불안 및 우울, 자폐증¹⁾등을 진단하는 것이었다.

두번째로는, 심리건강 및 심리료법에 대한 소개를 다룬 논문이 5편(21.74%)이었다. 특히,

<표 8> 북한 의학 학술지중 심리상담 및 심리료법 관련 논문에 대한 내용분석

구분	빈도(%)
진단도구	9(39.13%)
심리건강 및 심리료법 설명	5(21.74%)
상담 및 심리치료효과	4(17.39%)
진단도구(기준)개발	3(8.7%)
심리적변화	2(8.7%)
합계	23(100%)

어린이 불안에 따른 심리료법을 소개할 뿐 아니라, 현대사회에 있어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정의, 정신건강의 의미와 개념, 건강심리학의 중요성과 역사, 신체적 건강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상담 및 심리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4편(17.39%)이었으며, 그중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후 경막외마취 유효율이 93.9%라고 보고되었다. 또한, 임신때 상담을 하지 않은 여성의 갓난아이 사망률이 1.9배인데 비하여, 6-8번 상담을 받은 여성의 갓난아이사망률이 1.6배 정도로 차지한다고 하며, 상담의 중요성과 유효성을 소개하고 있다.

네번째로는, 진단도구(기준)개발과 관련된 논문이 3편(13.04%)이었으며, 그중 소아과상담시 4세~16세 내원한 어린이환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증상검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행동 및 정서장애를 조기 감별하는 기초적인 지표를 제시하였다. “(부모보고형) 어린이증상검사표”는 전체 35개문항이며 3점 척도(0점:없다, 1점:때로 있다, 2점:자주있다)로 평가한다. 22점 이상은 의진자로 평가하였으며, 부모 및 보육/교육자들의 관찰에 따라 의심이 되는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증상검사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변화를 측정된 연구가 2편(8.7%)이었다. 그중 한편의 논문을 소개하면, 전국 및 평양시의 9세~20세 청소년 12,847명을 대상으로 심리변화 특성 결과를 발표하였다. 심리변화 특성은 12개 문항으로 사회관계수립, 독자성, 자기평가, 리상/포부, 가정심리, 이성심리로 이루어져 있다.

1) 북한 표기에 준하여 명기하였음.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논문의
연구대상별 구분

심리 및 정서관련 도구를 활용한 17편 (60.71%)의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대상별로 살펴보았다(표 9).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9편(52.94%)으로 나타났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상 아동청소년 및 성인 복합 대상 연구는 2편, 불안 및 우울, 정서관련 청소년 연구는 3편, 자폐증 대상자는 4편이었다. 임신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과 기타는 각각 5편

(29.41%)이었으며, 정상임신부 대상은 3편, 산후자율신경기능실조증환자 및 임신합병증환자 대상은 각각 1편이었다. 기타에서는 3편 (17.65%) 게재되었다.

IV. 맺는 말

1. 연구의 함의

김정은 시대이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출간된 북한 의학 학술지에서 정신건강 관련을

〈표 9〉 연구대상별 구분

구분	대상	편수	소계(%)
아동/ 청소년	정상 아동청소년	4-16세 어린이 36례	1편
	정상아동-성인 복합	전국 9세-20세 12,847명(남 6,543명, 여 6,304명)	1편
		격리불안장애진단 1세-7세 359례(남 202, 여 157)	1편
	정서장애	생후6월-7세 공포불안진단 173례(남103, 여70)	1편
		정서장애진단 어린이 40례(대조20, 연구20)	1편
	자폐증	3세-8세 자폐증환자 75례	1편
		1-14세 자폐증환자42례(남31례, 여11례)	1편
		자폐증 확진 어린이 90례	1편
		2세-6세 자폐증 확진 어린이 95례 (대조, 자폐증유사질병 확진 어린이 48례)	1편
성인	정상임신부	3편	
	임신부	임신합병증환자 (된입쓰리 26례, 자궁외임신 17례, 정상임신부 34례)	1편
		산후자율신경기능실조증환자 86례, 대조군, 정상경과 산모 62례(26-34세)	1편
입원환자	입원실 6개과 120례(내과 3개, 외과 3개과)	1편	
기타	내원환자	도병원과 정신신경의학연구소에 내원한 해리성장애환자 각각 50례	1편
		회복치료과 래원 외래환자 380례 (남 195례, 여 185례, 19세이하-60세이상)	1편
합계		17편(100%)	

살펴봄으로써,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상승하는 곡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북한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한 것으로 '정신질환'과 관련된 '49호 병동'은 있으나(박현준, 김민자, 권영대, 우종민, 유시은, 노진원, 2015; Shieun Yu, et. al. 2018), '정신건강'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으며, 정신건강과 관련된 불안 및 우울은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언급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김석주, 박영수, 이해원, 박상민, 2012). 또한, 북한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북한내 정신건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김연희, 2006; 조영아 등, 2009; Shieun Yu, et. al. 2018)

이에 북한 의학 학술지를 통한 정신건강 관련 연구를 탐색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출판년도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연구 추세를 볼 때 북한의 학문 연구 발전 및 방향성을 볼 수 있다. 북한은 학술지 주제 선정 및 발간 과정 등이 남한과 달리 국가가 계획하고 개입함으로써, 학문의 다양성과 발전이 좌우된다. 즉, 북한은 '사상'을 강조하며 전부적인 정신력을 강조함으로써,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위축될 여지가 있다(중앙중앙통신, 2019년 11월 16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 과학발전 및 지식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창조실천형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현대적인 추세를 따라가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리강언, 2013).

둘째, 북한의 정신건강 관련 분야도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

행 연구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의 정신건강 진단 도구 및 활용에 대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김석주, 등 2012). 그러나 본 북한 의학 학술지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진단 도구, 절차, 참여 대상자 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정신건강 관련 연구 주제를 볼 때, "불안 및 우울"에 대한 관심이 다른 주제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것과 상반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주민들은 불안과 우울은 정신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와 대치되는 것이다(김석주 등, 2015, 우종민 등 2013).

마지막으로, 신체건강 및 기초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 학술지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반면, 정신건강 관련 연구는 연구대상자 유형 등을 고려한 다양한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었다. 이러한 게재 상황을 볼 때, 북한의 정신건강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 영역 및 전문가 풀(pool), 사회문화적인 관심 등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2. 대북 교류협력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정신건강 관련 저자들의 전문 영역과 교류협력 대상자들을 가늠할 수 있었다.

첫째, 청소년들의 정서관련(불안 및 우울)관련 연구는 리성진, 리영민, 김유근이 지속적으로 활발한 게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남북 및 국제교류협력시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상자별 심리 및 정서관련 진단 도구 개발 연구를 볼 때, 이에 대한 기술 교류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 주제별로는 아동의 자폐증에 대

한 지속적인 논문이 출판되는 것을 볼 때, 발달 장애 관련된 교류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고난의 행군이후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료법 및 심리적인 진단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유아 및 청소년의 건강이 북사회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주목할 것은, 북한 의학 학술지의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볼 때, 병리적인 측면이다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정신건강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해마의 현대의학적 견해”와 전반적으로 정신건강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현대의학 및 건강심리학” 종설 분량을 [연구성과 및 경험]에 준하는 지면 할애를 했다는 것이다. 종설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강의안처럼 설명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볼 때,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점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에 정신건강 관련 교류협력을 할 경우 정신 의학적인 개입 및 약물치료,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시 긍정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한계점 및 의의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가 입수한 북한 의학 학술지중 3종을 선정하여 정신건강 관련 연구를 탐색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에 김정은 시대 이전과 경향적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둘째,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정의된 (WHO, 2005), 정신건강의 개념인 ‘정신적으로 병적인 증상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며

자주적이고 건설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를 갖추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감안할 때, 북한 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정신건강 관련 논문에 언급된 정신건강 개념을 비교 고찰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북한의 전반적인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양원], [교원수첩], [인민교육], [고등교육], [천리마]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북한 의학 학술지를 통하여 정신건강 연구현황 및 학술적인 연구 주제, 연구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남북한 및 해외 연구자들의 학문적인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북 보건의료 교류의 지평을 확대·전문화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석주, 박영수, 이해원, 박상민 (2012). 북한 의사들이 바라보는 북한의 정신의학 현황, *정신신체의학*, 20(1), 32-39.
- 김석주, 이원재, 박상민, 이해원, 최희란 (2015). *북한주민의 질병관과 질병행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연희 (2006). *북한이탈주민의 정신보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춘경 (2016). *상담학사전*, 서울: 학지사.
- 로경희 (2014). *어린이자폐증때 몇가지 발달심리학특성에 대한 연구*, *조선의학*, 4, 22-23.
- 리강언 (2013). *가치창조과정에 대한 선행리론과 그 평가*, *경제연구*, 1, 21-22.
- 박현준, 김민자, 권영대, 우종민, 유시은, 노진

- 원 (2015). 북한이탈주민이 생각하는 남북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시급성(urgency)과 심각성(severity), 통일문제연구, 27(1), 279-297.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4).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우종민, 권영대, 유시은, 노진원, 박동연 (2013).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건강 인식도 및 태도 조사, 서울: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 연합뉴스, 2019년 11월 16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6009600504?input=1179m>
- 김정은, 전투비행경기대회 참관... "불패 위력 남김없이 과시", 2019년 11월 16일 검색.
-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 남한 내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1(1), 329-348.
-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교육심리학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 APA (2015).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서울: 학지사.
- Kim SJ, Park YS, Lee HW, Park SM. (2012). Current situation of psychiatry in North Korean: From the viewpoint of North Korean medical doctors. *Korean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20(1):32-39.
- Kim, S. K. (2013). A Review of Research on Runaway and Homeless Youth: A Comparison of Trends Between American and South Korean Journals from 2001 to 2010,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DOI) 10.1007/s10560-013-0313-5.
- Park YN. (2012). New challenge for psychiatry: From symptomatic treatment to mental health promotion.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1(3): 101-106.
- Shieun Yu, Jungeun Jang, Jin-Won Noh, Young Dae Kwon, Hyunchun Park, Jong-Min Woo. (2018). What is it to be mentally healthy from the North Korean refugees' perspective? Qualitative research on the changes in mental health awareness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s. *Psychiatry Investigation*, 15(11):1019-1029.
- WHO. (2018, 3),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mental-health-strengthening-our-response>, Mental health: strengthening our response, 2019년 10월 30일.
- 투고일자: 2019. 9. 16.
심사일자: 2019. 11. 15.
게재확정일자: 2019. 11. 28.

An Exploratory Study on Mental Health Research Recently Published in North Korean Medical Journal

Shieun Yu

Department of Healthcare and Medicine for Unified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search of mental health published in the medical journal in North Korea recently. To this end, among 11 types of North Korean medical journals received in South Korea, [Preventive Medicine], [Pediatric/Gynecology] and [Choson Medical] were analyzed. The scope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Kim Jong Un era, considering the mental health-related tasks at hand and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future. From 2011 to the second half of 2018, there were total of 28 papers on mental health-related subject, and 23 out of them were related to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treatment (82.14%), which mainly included psychological diagnosis and treatment effects, and introduction of psychological health and treatment. The number of mental health publications per year was as followed; one in 2011 and 2012 each, two in 2013 and 2014 each, seven in 2015, four in 2016, seven in 2017 and four in 2018. According to an analysis of research methods related to mental health in the North Korean medical journal, they consisted of 14 expository studies (50%), 11 literature research (39.29%), two experimental studies (7.14%), and one statistical DB study (3.57%). Through these exploratory considerations, this study finally presented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related research in the North Korean medical journal and proposed plans for future cooperation in mental health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eywords : *Exploratory study, Mental health studies, Journal of North Korean Medical Sciences*

